

데스크 시국



박진현 문화·예향담당 국장

초여름의 김목인 지난달 중순, 국립광주박물관에는 삼삼오오 몰려드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평일 대낮인데도 박물관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그런데 웬걸, 이들이 향한 곳은 전시장이 아닌, 박물관 본관 옆에 자리한 교육관이었다. 매일 격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광주박물관 대학'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34기를 맞는 박물관대학은 초현실주의, 추상미술, 비디오아트 등 서양미술의 변천사를 조망하는 강좌다. 강의장으로 들어서자 객석을 가득 메운 100여 명이 열광중이었다. 얼핏 보니 30대 여성에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한 70대 시니어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60대 중반인 손미라씨는 '우등생'로 불린다. 지난 2006년 박물관의 자원봉사자로 첫 인연을 맺은 그녀는 뒤늦게 '입문'한 미술의 세계에 푹 빠져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미술관, 공연장 메운 '열광족'

매일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에는 광주예술의전당(GAC)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다. 클래식과 유명인사들의 토크쇼를 접목한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이다. 흔히 공연장은 저녁에만 간다는 고정관념을 깨 마티네 콘서트다. 지난 3월 소설가 김영하가 진행한 '예술가의 클래식' 콘서트는 그의 인기를 입증하듯 인터넷 예매 3분만에 500석이 매진돼 부라부라 추가 좌

은편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보는 우리에게 사·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소통의 경로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지식 소비의 질적 빈곤을 겪고 있다. 지식 소비의 질적 빈곤이란 정보는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없고, 더 나아가 가공시키지 못해 새로운 정보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식 소비의 질적 빈곤은 몇 해전 갑작스러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식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것에 대한 사전 교육이 선행되지 못한 채 급진적으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었던 것도 원인중 하나다. 이러한 뜻하지 않았던 정보환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비판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정보를 이해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아무리 강조

기고



문길섭 시암승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 부처님 오신 날(5월 15일) 오후, 광주에 온 이 해인 수녀님이 종장로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 여러 팬들과 함께 기다리신다고 하기에 갔다. 10여 명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수녀님 옆자리에 앉아 담소에 끼어들었다.

수녀님과 인연을 궁금해 하는 분이 있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화를 들려 드렸다. 처음 수녀님께 관심을 가진 것은 프랑스 유학 시절이었다. 파리에서 지낼 때 우리 모국어가 그리워 한국 문화원 도서관에서 몇 권의 우리 말 책을 빌려왔다. 그 중 한 권이 수녀님의 첫 산문집 '두레박'이었다. 속소에 돌아와서 산문집을 읽기 시작했다. 단순하고 투박하고 따뜻한 글을 읽으면서 고향에 돌아온 듯 행복감이 젖어들었다. 그리고 나서 귀국 후 광주의 어느 성당에서 수녀님의 강연이 있다가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었다. 당시 40대 후반쯤 되셨을 수녀님이 '좋은 말 쓰기'에 대한 강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

석을 풀기도 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 주부 문정희(58)씨는 클래식 마니아인 김씨의 책과 음악,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GAC에 마티네 콘서트가 있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는 브런치콘서트가 있다. 지난 2015년 ACC가 개관한 이후부터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오전 11시 클래식, 국악, 재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강의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차별화된 강사와 콘텐츠를 내세워 일반인은 물론 은퇴후 인생 2막을 맞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예술 놀이터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96년 탄생한 '카페 필로소피아'는 지역에서 보기 힘든 인문학 동지다. 전남대 철학과 성진기 명예교수가 물질만능의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기 위해 꾸린 모임으로, 인문학 바람이 불기 훨씬 전부터 철학을 중심으로 문학, 역사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은암미술관에서 심포지엄과 초청기 회원인 이근표·진경우·김해성 작가의 철학적 이미지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물론 이들처럼 '공부파'만 있는 건 아니다. 미술과 음악 등 예술에 '눈을 뜨게' 된 이후 문화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행동파'들도 있다. 지난해 9월 지역의 미술 애호가들이 주축이 된 '광주미술관회'가 주인공이다. 지난 2002년 광주시립미술관을 후원하기 위해 발족한(사)광주미술관회회가 전신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서포터즈인(사)현대미술관회를 벤치마킹한 광주미술관회는 소아과 의사 출신인 김영희(57)이사장을 필두로 미술, 음악, 여행 등 평소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전문직, 회사원, 주부, 미술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비록 창립지 1년도 안된 신생조직이지만 지난해 9월 광주시립미술관의 기획전에 참가한 '한희원 작가와 의 대화'를 비롯해 해설이 있는 문화마실, 소장가와의

대화 등 창작자와 향유자를 잇는 다양한 현장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모한 '광주학생미술대전'에는 300여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 지역 문화계를 놀라게 했다.

89년 광주극장이 '버려온' 힘은?

지난달 말, 취재차 만난 '광주극장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화에 '미친', 아니 광주극장을 애정하는 향유자들이었다. 1만3000여 명이 가입된 '광주극장' 네이버카페 회원 가운데 '대표'로 나온 5명은 비록 나이와 직업은 다르지만 전국 유일의 단극이자 올해로 89살이 된 광주극장을 아끼는 마음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특히 1만원 이상의 후원비를 내는 회원 440명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중에서도 연장자인 정애화(67)씨의 사연은 몽글몽글 감동을 준다. 10대 여고시절, 광주극장에서 처음으로 '벤티', '퀴비디스'를 본 후 '덕후'가 된 그녀는 광주극장 홍보대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일주일에 2-3일은 극장을 찾았고, 3일동안 개최된 광주극장 영화제 기간에는 매일 5-6편의 영화를 관람하느라 몸살이 날 정도였다. 해외여행중에도 광주극장의 '안부'가 궁금해 틈틈히 극장카페에 들락 거린다는 그녀는 지난 2002년 오랜 꿈이었던 광주극장을 주제로 3권의 책을 내기도 했다.

21세기는 '문화'가 화두인 시대다. ACC, 광주대표도서관 등 화려한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광주비엔날레,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빅 이벤트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문화를 향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무늬만 문화도시일 뿐이다. 이제 문화는 더 이상 소수 애호가들만이 누리는 사치가 아니다. 문화도시의 저력은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의 일상에서 나온다.

지식 소비의 질적 빈곤과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터러시 즉, 문해에 대한 정의는 초창기에는 주로 문맹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영어로 literacy, 라틴어 literatus에서 파생되었는데 고대에는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세에서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었다. 즉,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이해 능력으로 한 개인이 소속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기 위한 전형적인 능력이다.

얼마 전 또 동영상 사이트에 방영된 사원모집 공고문 때문에 문해력 논란이 일어났다. 공고문에 모집인원이 0명으로 표기돼 있어 누리꾼들의 댓글이 다양하게 달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채용공고에서 0명은 적게는 0명에서 많게는 9명의 인원을 뽑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0으로 받아들인 몇몇 누리꾼들이 0명 뽑을 것 같으면 공고 자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예외가 아니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일이니 당장 공고를 내리라고 했다. 반면에 의미를 제대로 해석한 누리꾼들은 0명이 아니라 9사이로 쓰이는 것을 모르는 댓글 작성자의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이 문해력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는 디지털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 디지털리터러시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발견하고 창조하며 평가하고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리터러시에 대한 초

기 개념은 디지털 및 인터넷 기기의 접근과 활용 등의 디지털 기술적인 역량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리터러시 개념은 기술적 이용 능력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정보의 활용 전반에 연관된 개인의 능력까지 포괄하고 있다.

일상생활 곳곳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활용능력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도서관,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교육이 수강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실현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신이 필요한 전자매체에 대한 통합교육이 아니라 1대1 맞춤형 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과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격차의 극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정보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계층은 디지털 이동성이 낮아 정보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정보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에 시(詩) 초대 하기

연을 하셨다. 난 감명 깊게 듣고 돌아올 때는 사인도 받았다. 몇 달 뒤 우정사업본부 편지쓰기 공모에 수녀님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투고했고 입상했다. 나중에 원고를 수녀님에 보냈더니 반가워하시며 답장도 보내 주셨다. 나중에 광주 오는 길에 '베토벤' 음악감상실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주셔서 첫 만남을 가졌고 지금까지 교분이 이어졌다. 수녀님은 내 첫 저서인 칼럼집 '흔들릴 때마다 시를 외었다'와 '명시 50편 시선집'에 추천 글을 써주시고 내 시운동에 힘을 보태 주셨다.

이 이야기 끝에 한 달에 한 번 풀로 가서 강의하는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그날은 여자 재소자 대상 강의였다. PPT로 소개하는 여러 좋은 시들 중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란 시가 있었다. 오래전 수녀님이 투병 중에 쓰셨다는 이 시가 수녀님 '해인글방' 벽에 인상 깊게 걸려 있었고 내용도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 종종 소개해곤 했다. 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화면을 넘기는데 재소자 한 분이 화면을 뒤로 돌려달라고 하였다. 돌려더니 그 분은 그 시를 노트에 베끼기 시작했다. 난 강의를 멈추고 필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이 시를 소개한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것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어

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베토벤'에서 수녀님과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환담 후, 수녀님이 시를 한 편씩 낭독하길 권했다. 돌아가며 수녀님의 최근 신간들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시 한 편을 골라 낭독했다. 자기 얘기가 실렸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낭독자는 만사가 울먹이기도 했다. 수녀님의 시에 위로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책에 있는 시를 골라 낭독하는 대신 말에 관한 시 한 편을 암송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나를 키우는 말")

언어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 시대에 국민 모두가 이 시 한 편만큼은 외우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 외우기 힘들면 "행복하다, 고맙다, 아름답다" 이 세 마디만이라도 하루에 여러 번 되풀이하면 좋겠다. 또 '행, 고, 아'를 견배사로 쓰면 어떨까 싶다. 우리의 일상 만남에서도 시가 한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社說

'지정 기부' 시행, 고향사랑기부제에 활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어제부터 자치단체만 선택하는 방식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동안은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에만 기부했는데 지금부터는 원

하는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꼭 찍어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고향사랑 지정 기부'인데 제도 변화로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자치단체 입장에선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 힘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윈-윈'이 될 것이라 기대가 높다. 현재 지정 기부가 가능한 사업은 전국 8개 지자체의 11개가 대상이다. 광주·전남에선 광주 동구청의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아구단' 지원과 영암군의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얻고 있는 곳들이다. 동구청만 하더라도 기부

받는 플랫폼을 행안부 것이 아닌 '위기브'라는 민간 플랫폼을 선택해 전국 자치구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를 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정 기부 대상을 점차 확대해 도입 2년만에 정체에 놓인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정 기부제 시행으로 지자체간 아이디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부자를 유인할 만한 기발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지정 기부제를 시행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반길 일이다. 지정 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행안부가 시행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보내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면 될 일이다. 행안부 플랫폼 대신 민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북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형평성 고려해야

호남지역 4개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지역인재 전형에 지역민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북 지역 4개 대는 총정원 634명 가운데 443명(64.3%)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정원 163명중 130명(79.8%), 조선대는 정원 150명중 100명(66.7%), 전북대는 정원 171명중 111명(64.9%), 원광대는 정원 150명중 102명(68%)을 선발한다. 하지만 전북권 의대는 광주와 지역인재 전형 대상자의 지역 범위를 다르게 적용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광주와 전남·북을 포함한 호남권 모든 지역으로 설정한 반면 전북대와 원광대는 모집 유형을 전북과 호남권(광주, 전남·북)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전북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전북지역으로만 제한해오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2024년 대

학입시부터 호남권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11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북대는 전북권 56명,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호남권 18명을 각각 선발하게 된다. 호남권선발 인원은 전북권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원광대 또한 지역인재 전형 102명 가운데 전북권에는 65명을 배정하고 호남권에선 절반 수준인 37명을 선발한다.

광주·전남 지역민과 수험생들은 전북권 의대 두 곳이 전형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시 형평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전남대·조선대와 같이 차등을 두지 않고 지역인재 전형 대상의 지역범위를 호남권으로 통일해 달라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전북권 대학을 방문해 동일한 지역범위 적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북 대학들은 호남이라는 큰 틀에서 공동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5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치킨 게임'이라는 놀이가 있었다. 두 명의 운전자 정면 충돌을 불사하고 맞은 편에서 서로 차를 몰며 돌진하는 게임이다. 먼저 피하는 운전자 패하게 되며, 이 경우 핸들을 꺾은 사람은 '치킨'이 된다. 여기서 치킨은 겁쟁이(coward)를 뜻하는 속어다. 1955년 미국 배우 제임스 딘이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화 '이유 없이는 반항'에서 묘사되기도 했다. 치킨 게임은 둘 중 한 명이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 결국 두 명 모두 죽게 된다. 한 명이 피하게 되면 두 명 모두 살 수 있지 않면,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했던 이 게임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사실상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몫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의석이 가장 많은 제1당에서 국회 의장을 선출하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국민의힘 운영위는 여당의 원

내대표가 했던 점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는 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고 버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아 법안 통과에 차질을 빚은 경험 탓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이 규정된 원 구성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민주당은 협의가 불발되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면 야당의 의석수가

175석이 넘어 모든 상임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대치하면서 47일만에 개원식이 열렸는데 이 전절을 또 밟을 지 우려된다. 당시 민주당은 첫 원 구성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 게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야 모두 22대 국회는 민생 우선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정·치·경·사·전, and contact information.